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미국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자보다 적은 득표수를 얻고도 당선된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섯 번째다. 여러모로 이단아의 풍모를 가진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도 독특한데, 중국이 허구의 기후변화 위험을 과장한 배후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재앙의 과장을 통해 미국 정부의 석탄 사용 감축 정책을 유도해서 미국 내의 제조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음모론은 항상 사람들을 피륙게 하는 걸까. 기후변화 중국 음모론을 주장한 그의 2012년 트위터 글은 10만 번 이상 공유됐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너무 어처

국제정치의 탁류에 빠진 기후변화

구니없는 얘기라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예전에 본 장면과 뭔가 흡사하다. 조지 W.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고어는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배했다. 고어는 8년 동안 부통령을 한 검증된 정치인이었고, 인터넷 초기에 미국 전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데 앞장선 덕에 인터넷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런 칭호까지 따라다닌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닥친 대재앙임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에 주요 역할을 했다. 환경 활동가로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2007년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부시는 어쨌나. 기후변화는 인간이 유발한 것이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기보다는 시각을 가졌고 미국 내의 석유 시추 확대를 지지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알 고어의 방식이 미국 내 제조업의 위축을 부를 것을 염려한 미국인들 상당수로부터 부시 지지를 이끌었고, 선거인단 간접선거라는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은 부시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

국가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역부족이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서 국제협약을 체결한 게 1년 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염려하는 지경이 됐다. 그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추진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각종 환경 규제는 약화될 것 같다.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테슬라의 충격 같은 신세경(新世界 : 새로운 세상의 풍경)을 거침없이 보여주던 미국이 아닌가.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화성 우주 계획을 발표한 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해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세계의 공장이자 공해 유발자라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이름으로 불렸던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중이다. 중국 각지의 사막화가 확산되고 서부 산악지대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등 기후변화는 신기루가 아니라 실재하는 거대 재앙임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수도 베이징의 하늘은 뿌옇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총량의 감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인 한 명이 연평균 17.6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중국인 평균은 아직 6.2t에 불과하다. 이 차이가 줄수록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젠 미국이 오히려 더 놀라겠다.

유네스코는 2013년을 ‘MPE의 해’(Year of Mathematics of Planet Earth)로 선포했다. ‘지구를 위한 수학의 해’라는 뜻이다. 실험이 힘든 기후변화 연구의 특성 때문에, 축적된 방대한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한 수학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응책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 문제와 맞서 싸우는 최일선에 수학자들이 있다. 알파고 스타일의 데이터 관점 접근도 있고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기후변화 모델링 접근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내년도에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수학’을 주요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해양과기연구과 극지연구소 및 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계획 중이다.

위기가 기회다. 미국이 멈춰서는 시기를 우리는 연구력을 보완해서 주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종교칼럼



조발그니
사신동성당 주임신부

지난 주말 4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두번째 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다. 또한 대통령이 1차 담화에서 했던 말과 달리 청와대의 문건은 올해 4월까지 최순실씨에게 유출되었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청와대 홈페이지는 오보 반박 게시판 ‘이것이 팩트다’를 통해 그간의 일들을 정정한다며 개인 블로그와 같은 글을 올렸다. 자신들은 진실이라며 말을 하는데, 이젠 믿지 못하겠다.

가톨릭 사위교리 107항은 이렇게 말한다. “진리를 개인적인 삶에 관련시켜 표현하지 않는 진실, 정직을 의미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정직한 교제 없는 모든 공동체

거짓 버리고 진실의 세상으로 나와야

가 붕괴됩니다.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일치되지 않는 곳에서 정직이 전제될 수 없는 곳에서는 불신과 냉정과 교활함이 인간의 연대를 결집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결정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투명성은 진리에 속합니다. 이것은 특히 재정자원을 사용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DOCAT 무엇을 해야합니까?)

무엇보다 공공의 영역을 지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 정직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를 따라야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믿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분당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성직자인 나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정직이다. 내가 신자들을 무시하거나 속여서는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에게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다 거짓 같아 보이고,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조차 어기고 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막스 베버는 권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통적 권위는 왕위 세습이나 가부장적 권위처럼 지도자의 명령을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러하였다는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적 권위는 지도자의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 추종자의 경

외심이 복종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셋째, 합리·합법적 권위는 법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권위의 근거가 있는 경우이다(주상환 외). 지금의 대통령은 합리·합법적 권위라 아니라 전통적 권위 즉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을 주술사나 신의 자리에 두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권위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한계를 벗어날 때 자신을 신격화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승리의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역사에 걸쳐서 스스로를 절대 권력으로 높이려는 모든 권력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하여 믿는 이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권위도 내세울 수 없으므로 부패한 사탄의 권력이 패배했음을 증언한다.”(간추린 사위교리 382항)

대통령에게 맡겨진 권위는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위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에게 권위를 위임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또한 그 부역자들 역시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을 거듭하면 끝이 좋지 않다.”(집사서 7장13절)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잊어버린다. 대통령과 그 부역자

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세상으로 고통히 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선의와 각 개인의 선의를 위하여 일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단 없이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행위를 꾸준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간추린 사위교리 43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이다. 언론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국민 뒤에 숨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알렸다가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거짓을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에베소서 4장25절)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순실 정국’ 한달... 다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와 물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 지난달 24일.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최순실의 태블릿피시가 발견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는 실패로 돌아갔다. 개헌 논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덮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대통령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나갔다. 한 달 동안 날이면 날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압세포는 국정 전반에 걸쳐 퍼지자 않은 곳이 없었다. 급기야 최근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까지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야 3당은 각각 탄핵안 준비 실무기구를 만들어 탄핵안 마련에 착수했고, 여당 비주류 의원들도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9일쯤 단 일인을 만들 예정이어서 이르면 12월 2일쯤 국회 본회의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현재의 검찰 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 검찰은 그러나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뇌물죄’ 입증 을 위해 대거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한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청와대 측에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대면수사 압박이 조여 오는 상황 속에서 사정라인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의 탄핵 의결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한 이후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사과 때와는 달리 완전히 돌변했다.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 한 원로 인사에게 “내가 잘 못했는데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 말은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 인식에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은 모두 아는데 정말 대통령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그 사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어느 일간지가 이번 주 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며 입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난 민심의 촛불이 전국에서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을 위해 대거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한 박 대통령이 오는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까지 구매했다니

청와대가 ‘대반주사’ 등 미용 목적의 주사제들과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 수행하는 청와대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약제들이 반입됐다니 참으로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밝힌 청와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반주사’와 미용·영양 주사 400여 개도 함께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는 비아그라 구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고산병 치료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엔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따로 고산병 예방약인 아세트아졸라이드까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사는 경호원 등의 건강 관리 목적이었다니 참,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은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의료진 존재 등으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입기운병식의 해명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청와대는 ‘지극적인 보도가 난무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진상을 정확히 밝히기만 하면 된다.

無等鼓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Elisha)의 행적을 기록한 구약의 열왕기하 2장에는 ‘대머리’라는 신체적 특징을 약점 삼아 타인을 모욕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나와 있다. ‘엘리사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골 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가해지는 다분 어린주당의 손해한 국회의원, 피해자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감독이다. 손 의원은 지난 10일 차 감독이 검찰로 호송되는 도중 술 없는 머리 사진이 공개되자 ‘차러라 다 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광고계 사람들은 차 감독이 머리술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모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탈모 비하’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손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모를 비하할 생각은 아니었다. 원

편견과 소통

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가발까지 벗겨야 되나, 마음이 아팠다”며 “오해였더라도 마음 상한 분들께 사과드린다. 조심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차 감독이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아니었기에 다행이지만, 탈모에 시달리는 상당수 시민들로서는 트악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소통이 꼭 대화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기고

‘꼬마 작곡가들’과 행복했던 8개월

남에게서 직접 번역한 크리스토퍼 스톨의 ‘뮤지킹, 음악하기’를 선물로 받았다. 스톨은 책에서 음악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볼 것을 주문했고 그의 이야기는 시향 직업으로 일하는 내내 나에게 지침이 되 자 속제였다.

음악회에서 부모님에 의해 또는 수행평가 때문에 끌려오는 생기 없는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스톨의 주장을 떠올렸다. 명사로서 고정된 음악은 너무 어렵다. 우리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음악을 함께 만들고, 연주하고, 감상하고, 춤을 추는 통사로서 대한다면 즐거울 수 있을 텐데.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오케스트라가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 광주시향은 교육 관련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개발한 꼬마작곡가 운영단체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뉴욕필의 선진프로그램을 배우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운영 단체로 선정되고, 광주시향 내외부 여러 강사들을 모집해 워크숍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꼬마작

곡가를 통해 오케스트라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고 앞으로 광주시향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해 보자. 우리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즐거운 음악경험을 함께 해보자! 시작은 아주 야심찡했다.

꼬마작곡가는 악기나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뉴욕필에서는 악기나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을 우선 모집하라는 지침을 주었으나 지역 어린이들은 대부분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운 경험이 있고 학교에서도 음악이론에 대해 이미 학습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꿨다. 어렵고 수학공식 같은 음악을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꼬마작곡가 경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자고.

꼬마작곡가의 모든 과정은 놀이와 체험으로 설계된다. ‘내입제스처’ 게임을 하며 나도 모르게 리듬과 선율을 체득하게 된다. 아. 그리고 보니 ‘체득’이라는 표현이 참 정확하다. ‘체(體)’, 음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음악을 눈으로, 귀로,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한 친구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기에 이른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 신기했던 점 하나. 15주 정도 긴 여정의 다른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했던 선배들은 참가자들을 꾸준히 나오게 하고 수료시키는 일이 힘들다고 말했다. 간식과 당부, 때론 설득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꼬마작곡가는 달랐다. 어떤 당부와 어떤 설득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꾸준히 참가했다.

2기의 발표회 날, 친구들이 자꾸 말을 걸어온다. 내년에도 또 참가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어떤 친구는 발표회를 마치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 정말 마지막이구나를 실감하고. 몇 번을 울었다고 한다.

함께했던 15주간의 교육이 어떤 심포니, 어떤 뛰어난 음악가의 연주보다 더 아름다운 교향곡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꼬마작곡가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경험을 오래 간직하고 인생 내내 꺼내보고 살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자로서 아쉬움도 있다. 뉴욕필의 경우 꼬마작곡가의 작품을 대규모 편성해 정기공연 프로그램으로 삼기도 한다. 꼬마작곡가가 참여한 개인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주자, 더 많은 청중에게 영향을 주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부족하지만 행복한 지난 8개월을 보냈기에 다음 여정이 더욱 기다려진다. 더 많은 꼬마작곡가들과 ‘통사’로서 음악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p>光 州 日 報</p>		<p>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p>		<p>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p>		<p>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p>		<p>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p>	<p>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p>	<p>경영지원국 (FAX 222-8005)</p>	<p>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p>
<p>편 집 부 220-0649</p>	<p>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p>	<p>기획관리국 227-9600</p>	<p>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p>
<p>정 치 부 220-0632</p>	<p>문화미디어부 220-0664</p>	<p>(FAX 227-9500)</p>	<p>(FAX 02-773-9331)</p>
<p>사 회 부 220-0642</p>	<p>체 육 부 220-0697</p>	<p>다 자 인 실 220-0536</p>	<p>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사 회 2부 220-0652</p>	<p>사 진 부 220-0693</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